지역 **소식통**

### 정읍시, 9개 면 대상 통합형 보건지소 가동

정읍시가 전국적인 공중보건의사 부족 사태에 대응해 7월 2일부터 의료 기관이 없는 9개 면 지역에 간호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를 가동한다.

전환 대상은 민간 의료기관(의과)이 없는 △북면 △소성 △영원 △덕천 △이평 △옹동 △산내 △정우 △감곡 등 9곳이다. 나머지 6개 보건지소는 기존 운영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올해 정읍 지역에는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의료 취약지 주민을 위해 주 2~3회 진행하던 보건지소 순회 진료마저 중단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보건지소에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전문 의료인력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2명씩 투입하기로 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간 운영된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더라도 숙련된 전담 공무원이 지역을 돌며 일차 진료와 만성질환 약 처방, 상시 건강 확인(모니터링)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군, 청렴 UP! 소통 PLUS+ 워크숍 개최

부안군은 지난달 30일 NH농협생명 변산수련원 새만금홀에서 공직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UP! 소통 PLUS+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청렴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직급·세대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존의 주입식 청렴교육에서 벗어나 참여와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군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청렴에 대한 공직자의 실천 의지를 높이고 세대와 직급 간 소통을 확대해 조직 내 청렴 체감도 향상과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장, 민선 9기 시정 돌입

## '함께 만든 변화, 함께 여는 미래' 비전 선포… 시민 체감 성과 · 정읍 대도약 실현 혼신

이학수 정읍시장이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열고 민선 9기 시정 운영에 돌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준병 국회의원, 시의원, 기관·사회단체장,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민선 9기 출범을 축하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한 출발을 함께 했다. 특히 이번 취임식은 경기 침체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고려해 화려한 겉치레 대신 내빈 초청을 최소화해 내실을 다졌다.

공식 일정은 충혼탑 참배로 막을 올렸다. 이어 진행된 취임식은 시립국악단의 축하 공연, 취임 선서, 취임사, 축사, 축하 전문 낭독, 축하 영상과 민선 9기 비전 영상 상영, 떡케이크 자르기, 기념 촬영 순으로 치러졌다.

이 시장은 지난 민선 8기를 정읍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진 시간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9기는 그동안 일군 변화가 시민의 삶 속에서 분명한 결실로 이어지게 만들겠다는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새로운 시정 비전으로는 '함께 만든 변화, 함께 여는 미래'를 선포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첨단산업 키우는 성장도시 △농촌·민생 살리는 활력도시 △교육문화 누리는 품격도시 △건강복지 지키는 행복도시 △생활인구 모이는 정주도시를 5대 지표로 내세웠다.

아울러 일자리와 경제, 농업과 농촌, 보육과 교육, 문화·관광·체육, 보건·복지, 도시·교통·환경, 청년과 소상공인, 체류와 생활인구 등 8개 분야 80개 공약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학수 시장은 "민선 8기가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기반을 다진 시간이었다면 민선 9기는 그 변화가 시민의 삶 속에서 분명한 성과와 결실로 이어져야 하는 시간"이라며 "시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하나하나 만들어 정읍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미래 100년을 준비해 정읍 대도약을 시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마친 이 시장은 곧바로 주요 현안 사업을 결재하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어서 환경관리원과 도로관리원 등 현장 근무자들과 점심을 함께 먹으며 시민의 안전을 묵묵히 지키는 노고에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시는 민선 9기 시정 비전인 '함께 만든 변화, 함께 여는 미래'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정읍대도약을 실현하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폭염대응 양심냉장고 운영 · 생수 제공

## 누구나 생수 1인당 1병 무료… 고창군청 앞 · 고창읍성 앞 사거리 야외쉼터 등 총 8곳 설치

고창군이 폭염대응을 위해 1일부터 관내 주요 거점 8곳에 '양심 냉장고'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양심냉장고는 폭염특보가 지속되는 여름철, 군민의 온열질환 예방과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설치되며, 야외활동자나 보행자 등 누구나 1인1병씩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운영되는 장소는 △고창군청 앞 △고창읍성 앞 사거리 야외쉼터 △고창부안 축협 앞 △고창임시터미널 △고창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고창꽃정원 정원내부 다리 인근 △석정웰파크병원 앞 △보릿골 식당 앞 승강장(신규) 등 8곳이다.

이번에 운영되는 양심냉장고는 1대당 하루 약 500ml 240병의 생수가 비치되며, 생수는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채워진다.

아울러, 13개 면 지역에도 폭염 대응 생수 지원을 위한 예산을 재배정하여 각 면별 여건에 따라 주민행복센터, 터미널, 승강장 등 주민 이용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생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고창군은 양심냉장고 외에도 다양한 폭염 대책을 추진 중이다. △그늘막 40개소 운영 △무더위쉼터 607개소 운영(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생수 지원 △14개 읍·면 살수차 운영 등 폭염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심덕섭 군수는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로 군민들의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펼쳐 가겠다"며 "무더위 속 군민들이 잠시나마 갈증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무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민선 9기 심덕섭 고창군수 취임 '업무 시작'

## "중단 없는 고창발전, 고창의 대도약 이끄는 선봉에 설 것"

심덕섭 제49대 고창군수가 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1일 오전 고창동리국악당에서 군민과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지난 4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함께여는 미래, 도약하는 고창'을 만들어 가겠다"고 민선 9기 고창군정 운영방침을 밝혔다.

이날 심 군수는 취임사를 통해 "군민들께서는 중단없는 고창발전으로, '고창의 르네상스 시대'를 이어가고 '변화와 성장'에 대한 높은 기대와 설렘으로 마침내 '집권 여당 소속 재선 군수'를 만들어 주셨다"며 "앞으로 민선 8기에 추진해왔던 정책들을 진화시켜 도전적인 자세로 고창대도약을 이끄는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심 군수는 최우선 목표로 공약사업의 빠른 추진을 제시했다. 심 군수는 "우리농업과 AI·드론·로봇 등 첨단기술의 융합에 적극 나서고, 청년들이 농촌에서 삶의 기반을 만들어 농업에서 기회를 찾도록 돕겠다"며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권익현 제47대 부안군수 취임… 힘찬 출발

## "군민과 함께 미래 100년 부안 대도약 이끌겠다"

부안군은 권익현 제47대 부안군수가 1일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민선 9기 군정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는 기관·사회단체장과 군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민선 9기 출범을 축하하고 새로운 부안의 도약을 함께 응원했다.

행사는 군정 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수 및 표지석 제막식을 시작으로 식전공연, 본행사, 참석자 인사, 배식봉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취임식에서는 ㈜DH글로벌 이정권 회장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으며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박지원 국회의원의 축하영상, 친선결연도시 축하영상, 군민의 목소리 영상, 민선 9기 부안 대도약 희망 메시지 영상이 상영돼 군민과 함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 DH오토리드 이석근 대표이사와 DH오토넥스 김영식 대표이사가 각각 500만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권익현 군수는 취임선서를 통해 군민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취임사에서 민선 9기 군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 과수 전염병 '화상병' 유입 막는다

## 사과 · 배 재배 농가 현장 점검

정읍시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과수 화상병의 지역 유입을 막고자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올해 전북 무주군을 비롯해 세종특별자치시, 충북 보은군, 충남 공주시, 경기 고양시 등 곳곳에서 감염 사례가 확인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시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내 사과와 배 재배 면적 92ha를 대상으로 사전 방제 약제를 지원했다. 현재는 주요 과수원을 중심으로 현장 예찰을 진행해 의심 증상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 농가를 대상으로 작업 도구 소독, 과수원 출입 관리 요령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의심 증상 발견 시 즉각 신고해 정밀 진단과 초기 대응이 이뤄지도록 안내 중이다.

작업 도구를 수시로 소독하고 외부 작업자의 출입을 최소화하는 등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것이 감염을 막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